

# 野 지지율 상승에 잠룡들 勢불리기

### 손학규 '통합연대' 출범...정동영·정세균·유시민 조직도 활발

4·27 재보선 이후, 차기 총선 및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민주당 등 야권 대선주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당장,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인 '통합연대(가칭)'가 내달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통합연대'는 창립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과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의 지지모임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담대한 진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좌(左)클릭을 해온 정동영 최고위

원은 2007년 대선 조직인 '나라비전 연구소' 해체 이후, 한민족경제비전 연구소라는 전국적인 싱크탱크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결성된 지지모임 '정 최고위원'은 2만 회원들이 여전히 끈끈한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 최고위원이 강조하는 평화와 복지를 기치로 내건 '평화복지네트워크'가 전국 단위로 속속 발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단일정당 창당을 목표로 물밑 행보를 해온 정 최고위원은 내달부터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 인사, 재야원로 등과 공개회동을 하기로 하는 등 창당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의 싱크탱크 '국민

시대'는 지난달 출범 이후 '분수경제' 정책발표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달에는 한국 민주당의 또는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주 광주, 김해 등 '남부 민주당' 복원을 내걸고 3박4일 일정의 영호남 도보행진에 나선 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온·오프 라인 지지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희망천사', '정의전배' 등 전국 단위의 지지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도 4·27 경

을 맞아 유 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 수 2만3000명을 돌파한 '시민광장'은 지역별 모임이 활성화한 것은 물론 문학광장, 체육대회 등 광범위한 일상 활동으로 친목과 연대를 과시하며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27 재보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10% 가까이 오르면서 계파별, 조직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말의 정당대회와 내년 총선 이후 정치권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잠룡들은 지지 조직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연동목기자 tuim@kwangju.co.kr

# 돌아온 박지원 '저축銀 몸통' 밝힐까

### 신상조사위 위원장 맡아 여론 공세 전면 나설듯

### 박영선·박선숙 의원과 '박남대 3인방' 공조 주목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30일 원내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보름여 만에 당내 '저축은행 신상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돌아와 여론 공격의 전면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사태를 '권력형 측근비리 게이트'로 규정, 법사위에서 '찰떡 공조'를 이어오던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공조하며 몸통을 밝혀내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저축은행 '저격'을 지휘한 박선숙 의원까지 '박남대 3인방'이 이번 사태 규명을 위해 긴급 투입된 모양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TF 첫 회의에서 자신을 "2주 만에 '돌아온 장교'라고 소개한 뒤 "어제도 제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청와대 정부

수석이(구속기소원) 신상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특유의 정보력을 과시하며 원내대표 재임 시절부터 낯을 세웠던 정 수석을 정조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 수석) 이를 부인한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부산과 목포 보혜저축은행의 브로커로, 현재 도과 중인 이모 씨가 여러 가명을 쓰며 내연 관계에 있는 이들과 숨어 지내왔는데, 이씨 추청도 모 사찰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한번 보내봤다"며 "신 명예회장과 이씨를 고리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김황식 국무총리 등에게 어떤 로비가 이뤄졌는지만 밝혀지면 (의혹) 다 풀리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

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은진수 감사위원과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혔던 김 총리, 정 수석을 의혹규명의 열쇠를 쥔 3인방으로 지목,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히 "은진수 감사위원의 임명 당시 법사위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신랄하게 추궁하자 당시 감사원장이던 김 총리는 사서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가 발을 뺐다"며 "3인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박 정책위의장은 "BBK '보은인사'의 대표사례인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이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고, 박선숙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저축은행 감사를 왜 6개월이나 끌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전대를' 현행유지키로

### 대권·당권 분리... 선거인단만 21만명으로 증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30일 7·4 전당대회 경선규칙과 관련, 핵심 쟁점인 대권·당권 분리 규정과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당헌·당규대로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비대위는 협상 마감 시한인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종당헌을 발표했다. 선거인단 규모를 21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할 이루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대 틀과 관련해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안된 부분은 현행 틀을 따르도록 결정한다"면서 "미세한 부분은 당헌당규수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주자들에게 상임고문 등의 역할을 주고 예비 대선후보 등록시점도 현행 대선 240일 전에서 365일 전으로 앞당

기는 방안과 당 대표가 최고위원 2명을 직접 지명하는 방안 등 '중재안'은 당헌당규수위에 일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그동안 거론됐던 중재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임했다"면서 "소위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은 비슷한 고비 때마다 표결이 아닌 한발씩 양보해 합의 처리한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인단 규모를 21만 명으로 늘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청년 선거인단의 1만명 증원은 당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리 선출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끝까지 의견이 팽팽했다"고 회고하면서 "이견이 좁아졌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표결처리는 비대위의 실패, 나아가 한나라당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결정을 일임했다"면서 "한나라당은 비슷한 고비 때마다 표결이 아닌 한발씩 양보해 합의 처리한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인단 규모를 21만 명으로 늘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청년 선거인단의 1만명 증원은 당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 개최 직전 여·야 의원들이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용석 의원 '제명' 국회 윤리특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한나라당 정갑윤 의원)는 3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분회의로 넘겼다. 제명안은 이르면 내달 1일 개최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정몽준 전대표 2일 전남대서 특강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내달 2일 오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청으로 사회대 별관 11호 강의실에서 명사 특강을 갖는다.

정 의원은 이날 'FIFA 부회장' 자격으로 강단에 올라 2002년 서울 월드컵 유치사례를 비롯한 경제 및 체육 분야에서의 민간외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에서 배식 봉사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 민노당 "전남대 현철의 집 존치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30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현철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학교는 생명 존중과 사랑 나눔이라는 공익을 우선시해 현철의 집을 존속시키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전남대는 이런 일로 극한 대립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민의 뜻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시당은 또 "전남대 현철의 집은 지역민의 혈액 수급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가 법과 원칙을 앞세워 행정대집행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양심적 처사이며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전남대 현철의 집이 존치될 수 있도록 당원 현철 운동, 관계자 면담, 대시민 홍보 등 지역민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근혜·손학규 대선 가상대결 4%P차 '박빙'

####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대 1 가상 대결을 할 경우 4%포인트 차이의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를 가릴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26~28일 전국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대1 대결에서 박 전 대표는 41.1%, 손 대표는 37.0%의 지지율을 보여 박 전 대표가

4.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30일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친노진영의 '대안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가상 1대1 대결에서 40.8%대 30.6%를 기록, 10.2%포인트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

또 박 전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의 대결에서는 13.1%포인트,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는 18.1%포인트, 민주당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과는 각각 21.5%포인트, 26.6%포

인트씩 차이로 크게 앞섰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가 1대 1로 대결할 경우 투표의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후보 지지의사는 25.7%에 그쳤지만 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배 이상 높은 57.4%나 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일반가구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ARS/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유효표본은 1000명(응답률 5.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금산공인중개사

###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가능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 시청 접근성과 광·송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문화지구
- ※ 10층 신축건물임 코너

H.P.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 대인동상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 대지 : 263평, 신축창고53평, 사무실 26평  
건폐율 60% 유통단지  
▶ 매매가격 : 6억2천만원

###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 8, 9, 10, 9m  
▶ 호이스트 : 유, 유, 유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 016-644-4265, FAX.523-8558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비단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